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희정 · 홍윤기*

차례

1. 머리말
2. 한국어 문법 용어로서 ‘양보’의 타당성 재고
3.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4. 양보 연결어미의 제시 방안
5.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양보’는 양보 연결어미 ‘-아도’, ‘-더라도’, ‘-든지라도’, ‘-나들’ 등의 ‘의미’로 제시되기도 하고,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문법 용어’로도 쓰인다. 그러나 ‘양보’가 단일 어휘로 제시될 때 나타내는 의미와의 이질감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가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보 연결어미로 제시되는 항목의 의미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가 동일 범주로 묶일 수 있으며, ‘양보’ 대신에 ‘가정’이나 ‘대립’으로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교재에서 양보 연결어미의 예문으로 제시된 문장을 분석하여 양보 연결어미는 대립 연결어미의 하위 항목으로 가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를 [가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대의

부정]으로 규정하였다.

◇ 주제어 : 한국어 교육, 연결어미, 양보, 대립, 가정, 기대 부정

1. 머리말

한국어는 교착어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사와 어미의 발달이 두드러진 언어이다. 특히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를 나타내거나 특정 의미를 지니는 형태가 여러 개 있어, 언중들이 사건의 양상 및 사건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연결어미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주요 교육 항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연결어미의 형태와 의미가 복수로 대응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개개의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의미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학습자는 물론 교사도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 및 제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1) ㄱ.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덥다.

ㄴ. 여기는 바람이 불지만 덥다.

(1')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하지만 여기는 바람이 불면 덥다.

(1)의 선·후행절의 사건 관계는 연결어미에 따라 일반적으로 (1ㄱ)의 양보 관계, (1ㄴ)의 대립 관계로 기술된다. 이는 연결어미 ‘-아도’가 ‘양보’를, ‘-지만’이 ‘대립’의 의미를 표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보’와 ‘대립’으로 구분된 두 문장은 (1')과 같이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에 반하는 현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구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2) ㄱ.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 서희정(제1저자, 경희대학교 강사), 홍윤기(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교수)

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2')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한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않겠다.

(2)의 선·후행절의 사건 관계도 (1)과 마찬가지로 연결어미의 의미에 따라 (2ㄱ)은 양보 관계, (2ㄴ)은 대립 관계로 기술된다. (1)과 달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미지의 상황이 가정되기는 하나 (2)도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한다.'는 전제에 반하는 행동,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후행절의 명제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해석은 결국, '아도'와 '-르지라도', '-지만'의 의미기능을 '양보'와 '대립'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하게 만든다.¹⁾ 더욱이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가 비슷하여 명확히 구분 짓기 힘든 연결어미를 서로 다른 의미 범주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로²⁾ 제시되고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양보'가 학습자에게 제시될 연결어미의 의미로, 또 교수 과정에서 필요한 문법 용어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연결어미의 유형 분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적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양보 연결어미가 대립, 가정 등 다른 의미로 해석, 교육될 수는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양보 연결어미의 제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 설정의 합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연결어미의 유형 화에도³⁾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지금까지도 국어학에서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를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통합적 입장으로 주시경(1910), 최현배(1937), 양인석(1972), 허웅(1975), 이기동(1977), 서태룡(1979), 김종록(1991), 신지연(2004)을, 분리적 입장으로 이익섭·임홍빈(1983), 윤평현(1989), 전혜영(1989), 유혜령(1998), 이은경(2000), 이익섭(2005) 등을 대표적인 논의로 꼽을 수 있다.
- 2)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논의로 김윤정(2002), 김현지(2006), 장요한(2009)이 있으며, 아직 그 수가 많지는 않다.
- 3) 연결어미의 유형은 최현배(1971)에서 매는꽃, 놓는꽃, 벌림꽃, 풀이꽃, 건춤 등 14개, 채

2. 한국어 문법 용어로서 '양보'의 타당성 재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용어는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법 용어는 학습자에게 어휘로서 제시되는 단어와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이어야 한다.⁴⁾ 그리고 문법 용어로 제시되는 대부분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 (3) ㄱ. 아, 그 때는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서울대, 3, 145)⁵⁾
- ㄴ.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연세대, 5, 177)
- ㄷ. 야채 코너에서 야채와 과일을 포장도 안 한 채 수북이 쌓아 놓는 것도 의도된 판매 전략이다. (경희대, 6, 94)
- ㄹ. 식사 후 조금 쉬고 난 다음에 한국어 숙제와 연습을 하면서 다음 주 계획을 세웠다. (성균관대, 3, 98)
- ㅁ. 만일 내가 선생님이라고 가정하면 나는 예의 바른 학생들을 좋아할 것이다. (연세대, 3, 353)
- ㅂ.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운 사람을 찾는다. (경희대, 3, 40)

연강(1985)에서 나열, 동시, 계기, 목적, 의도 등 22개, 이상태(1988)에서 열거, 선택, 반복, 제시, 시간 등 7개, 남기섭·고영근(1993)에서 나열, 동시, 상반, 조건이나 가정, 이유나 원인 등 15개, 윤평현(2005)에서 나열, 선택, 대립, 조건, 양보 등 12개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이 상이한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연결어미의 유형 정립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4) 방성원(2002:116-117)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용어를 선정할 때 첫째, 최소의 문법 용어 사용, 둘째, 경제성과 정확성, 셋째, 일반적인 언어 사용, 넷째, 해당 문법 형태의 기능과 의미 함축 등 네 가지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에 대한 논의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5) 교재의 출처 표기는 '(대학명, 권, 쪽)'으로 한다.

- (4) ㄱ.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성균관대, 2, 46)
- ㄴ.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였어요. - 화자의 의도(intention)나 계획(plan)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 (경희대, 2, 196)
- ㄷ. 바쁘지 않으면 내일 만날까요? - 가정(assumption)이나 조건(condition)을 나타냄 (연세대, 1, 284)

(3)의 ‘이유’, ‘원인’, ‘의도’, ‘계획’, ‘가정’, ‘조건’은 문장에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4)에서 이 어휘들이 연결어미 ‘-니까’, ‘-려고’, ‘-면’의 설명 어휘로 쓰일 때도 본래의 뜻과 변함이 없다. ‘추측’, ‘인용’, ‘대립’, ‘동시’, ‘전환’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어로 제시될 때와 문법 용어로 쓰일 때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양보’의 경우는 여타 문법 용어와 다른 현상을 보인다. 즉, ‘양보’는 단어로 제시될 때와 연결어미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법 용어로 제시될 때의⁶⁾ 두 상황에서 그 의미가 나뉘어 쓰이고 있다.

- (5) ㄱ.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누구 한 사람이 손해를 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나그네가 제시한 대로 수학적 지혜를 활용하든가. (경희대, 5, 126)
- ㄴ.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 (성균관대, 3, 248)
- ㄷ. 주변에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연세대, 2, 428)
- ㄹ. 민수는 욕심꾸러기라서 먹을 것이 있으면 모두 혼자 먹는다. 절대로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다. (이화여대, 3, 181)

한국어 교재에 단어로 제시된 ‘양보’는 (5)처럼 자리, 길, 음식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무형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준다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⁷⁾ 반면,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 ‘-아도’, ‘-더라도’, ‘-

-든지라도’, ‘-나들’의 설명 어휘로 쓰일 때는 ‘양보’의 의미가 (5)와 사뭇 다를 수 있다.

- (6) ㄱ.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책은 꼭 사야 해요. - 양보의 연결어미 (서울대, 3, 82)
- ㄴ.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 가정이나 양보의 의미로 앞 문장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뒤 문장에서는 앞 문장의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쓰임. (연세대, 5, 127)
- ㄷ.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 미래의 가정에 대한 양보를 나타내는 문어체의 의고식 표현 (경희대, 4, 164)
- ㄹ. 그렇게 항상 거짓말만 하고 다니니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한들 믿겠어? - 양보의 뜻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른 내용임을 나타냄. (연세대, 5, 171)

(6ㄱ)은 책이 비싸면 안 살 수도 있지만 필요한 책일 경우는 반드시 사야 함을, (6ㄴ)은 손실을 본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함을, (6ㄷ)은 어렵게 살 경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을, (6ㄹ)은 콩으로 메주를 쑨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못함을 뜻한다. (6)에 기대어 볼 때, 선행절에서 내세운 조건이나 가정에서 야기되는 일반적인 상황이 후행절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밀려 채택되지 않음, 즉 일반적 상황이 특수한 상황에 그 자리를 미루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양보’라는 용어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 (5)에 쓰인 ‘양보’처럼 이익을 포기하는 주체나 이익의 수혜자, 그리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유’, ‘의도’, ‘계획’, ‘가정’ 등 문법 용어로 쓰이는 다른 단어와 달리, 유독 ‘양보’는 단어로 제시될 때와 문법 용어로 제시될 때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어휘의 의미에서 문법적으로 쓰이는 의미를 유추해 내기가 쉽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상이 학습자로 하여금 ‘양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

6) 개별 단어로서의 ‘양보(하다)’는 대체로 중급 수준의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연결어미도 주로 중급 단계부터 제시되고 있다.

7) 국립국어연구원(편)(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보(讓步)03’은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을 뜻하며, ‘자리 양보’, ‘그는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에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와 같이 쓰인다.

가 있다.

실제로 K대학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 22명을 대상으로 ‘양보’에 대한 이해도를 구두로 질문한 결과, 20명이 ‘지하철/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요.’, ‘동생에게 옷을 양보해요.’ 등의 문장을 만들며, ‘양보’의 뜻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해요.’, ‘오늘밤을 새울지라도 이 책을 다 읽겠어요.’라는 문장을 보여 주며, 이 문장어의 앞뒤 사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자리를 양보해요.’의 ‘양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7명은 문법 수업에서 ‘-아도’나 ‘-르지라도’가 ‘양보’를 뜻한다고 배운 사실을 기억했으나, 이 학생들도 이것이 ‘자리를 양보해요.’에 쓰인 ‘양보’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양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한국어 교육적 입장에서 문법 용어의 선정과 제시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국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⁸⁾ 즉, ‘양보’는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로서 갖추어야 할 의미의 함축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의 용이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3.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3.1 학습자 인식 조사를 위한 문항 설계

‘양보’는 지금까지 양보 연결어미로 다루어졌던 항목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법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어 학습자는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 등의 양보 연결어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

8) 홍윤기(2006:394)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이용하는 문법 형태의 정의와 기능은 대체로 국어 문법의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한국어 문법에 유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아울러 상황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줌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분명하게 해당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로서 메타언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 나름대로 이들 연결어미를 ‘양보’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연결어미와 연계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이들 연결어미의 제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양보 연결어미를 다른 연결어미와 의미가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양보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여 다른 범주에 속한 연결어미와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교육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반면, 학습자가 양보 연결어미를 다른 연결어미와 연계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양보 연결어미를 독립적인 범주로 제시하는 것보다 유사한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에서 아우르되, 개별 항목의 특징을 언급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위한 문항을 설계하고자 한다.

첫째, ‘양보’와 ‘대립’의 의미가 일정 부분 중첩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국어 교재에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로⁹⁾ 제시된 항목을 대상으로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임지룡(1982:195-197)과 김윤정(2002:3-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보 연결어미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도’, ‘-더라도’ 등은 주시경(1910)의 ‘뒤집힘’을 비롯하여, 최현배(1971)의 ‘놓는꼴’, 양인석(1972)의 ‘반대행위/사태 접속사’, 허웅(1975)의 ‘불구법’, 이기동(1977)의 ‘대조 및 양보 접속어미’, 서태룡(1979)의 ‘대립’, 임지룡(1982)의 ‘상대성 접속어미’, 그리고 신지연(2004)의 ‘대조 접속어미’로 분류되면서 ‘-지만’, ‘-나’ 등의 소위 대립 연결어미와 동일한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다.¹⁰⁾ 따라서 양보 연결어미는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대립 연

9)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립’, ‘대조’, ‘반대’는 엄연히 그 의미가 상이하면서도 둘 이상의 유형 또는 무형의 무엇인가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국어학에서도 ‘-지만’, ‘-나’ 등의 연결어미에 대해 ‘대립’, ‘대조’, ‘반대’를 혼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에게 비교적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반대’를 설명 어휘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립’이 다른 두 어휘에 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지만’, ‘-나’ 등 선·후행절의 명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말할 때 대립 연결어미로 지칭하겠다. ‘-지만’이나 ‘-나’에 대해 서태룡(1979), 임지룡(1982), 채연강(1985), 전해영(1989), 장경희(1995), 박병선(2000), 김영희(2001), 신지연(2004), 윤희현(2005)에서는 ‘대립’으로, 이기동(1977), 서정섭(1991), 손남익(1995), 이은경(2000)에서는 ‘대조’로, 김승곤(1981)에서는 ‘반대’로 그 의미를 규정한 바 있다.

결어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범주에 속한 연결어미를 학습자가 의미적으로 분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계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한다.

둘째, 양보 연결어미로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을, 대립 연결어미로 ‘-지만’과 ‘-는데’를 선정하여 각각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다. ‘양보’와 ‘대립’이라는 단어를 어휘나 문법 용어로 접한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연결어미의 의미 파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초·중급 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연결어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한다.

한국어 교재와 문법 사전에¹¹⁾ 실린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교재에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로 제시된 항목¹²⁾

의미	연결어미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양보	-아도	3권 3과	3권 10과	3권 13과	2권 3과	3권 12과
	-다손	6권 6과	—	5권 3과	6권 9과	—
	-더라도	3권 8과	—	—	5권 5과	—
	-르지라도	4권 5과	—	—	6권 1과	—
	-ㄴ들	4권 8과	—	—	5권 6과	—
	-기로(서니)	6권 6과	—	—	6권 3과	—
대립	-지만	2권 11과	1권 10과	1권 8과	1권 6과	2권 8과
	-는데	2권 19과	1권 10과	2권 10과	1권 9과	2권 8과

- 10) 주시경(1910)의 ‘뒤집힘’은 한 일이 그와 매인 일의 뜻에 뒤집히는 것으로, 최현배(1971)의 ‘놓는꼴’은 움직씨가 그 앞의 임자말에 대하여 풀이말이 되어 끝맺지 않고 그 뒤에 다른 말을 잇게 하되, 그 뒤에 잇는 말의 내용, 사건이 들어남에는 상관없음을 보이는 꼴로, 허웅(1975)의 ‘불구법(양보법)’은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제약법과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이음법으로 정의하고 있어 각각의 용어는 다르나 그 의미는 앞말이 뒷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11)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I ~ 고급 II, 서울대학교 <한국어> 1~4,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 V 등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5종 27권의 교재에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로 제시된 항목이며, 각 교재에 실린 문법 설명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서인 국립국어원(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백봉자(2006)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이희자·이종희(2006)의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연결어미를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로 구분하였다.

	-되	5권 7과	—	5권 9과	5권 4과	5권 5과
	-고도	—	—	—	3권 7과	—
	-나	—	4권 2과	—	—	—

위 연결어미 중, 두 개 이상의 교재에 실렸으며 초·중급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항목은 양보 연결어미인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과 대립 연결어미 ‘-지만’, ‘-는데’이며,¹³⁾ 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한다.¹⁴⁾

셋째, 조사 대상 연결어미의 의미는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선택지는 ‘가정’, ‘대립’, ‘대조’, ‘반대’, ‘배경’, ‘양보’ 등 여섯 개로 제한한다.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연결어미의 의미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제시되는 문법 용어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 조사 대상 연결어미의 설명 어휘로 쓰인 어휘를 <보기>로 제시하고, 이 중에서 문장에 쓰인 연결어미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은 ‘가정’, ‘반대’, ‘양보’, ‘-지만’은 ‘대립’과 ‘대조’, ‘-는데’는 ‘반대’와 ‘배경’이 주로 설명 어휘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들 어휘를 연결어미의 의미 선택을 위한 항목으로 제시한다.

위의 세 가지 원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12개의 문항을¹⁵⁾ 설계하였다.

(7)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를 위한 문항

※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보기>에서 찾아 ()

- 12) 다양한 교재에 제시될수록 교육적 중요도가 높거나 학습 단계가 낮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결어미의 출현 교재수가 많은 항목부터 제시하였다. 또한, 교재마다 학습 단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교재는 1, 2권이 초급, 3, 4권이 중급, 5, 6권이 고급이며, 서울대와 이화여대 교재는 1권이 초급, 2, 3권은 중급, 4권부터 고급 교재이다. 학교명은 가나다순이다.
- 1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데’는 ‘뒤 절에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로 풀이되고 있으며, 실로 다양한 상황에서 출현하는 연결어미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선·후행절이 의미적으로 맞서는 관계에 있어 ‘대립’의 의미를 표출하는 예문만을 다룬다.
- 14) 강범모·김흥규(2009:195-197)의 어미 사용빈도에 따르면, 본고에서 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양보 연결어미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과 대립 연결어미 ‘-지만’, ‘-는데’는 의미 범주별로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아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항목으로 드러났다.
- 15) 한국어 교재에 실린 예문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안에 쓰십시오.

<보기> ① 가정 ② 대립 ③ 대조 ④ 반대 ⑤ 배경 ⑥ 양보

- 바람은 불지만 비는 안 옵니다. ()
-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
- 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
- 김치는 매일 먹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
- 내일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
- 돈이 많은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친구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
-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 한들 그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
-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
-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사전을 찾지 마십시오. ()
- 지금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 부모님이 반대하실지라도 저는 그 사람과 꼭 결혼하겠습니다. ()

3.2 학습자 인식 조사 분석

2010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K대학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 83명을 대상으로 앞서 제작한 문항으로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⁶⁾ 학습자들이 문항별 연결어미의 의미로 선택한 용어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양보 및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 인식(회(%))

문항	연결어미	가정	대립	대조	반대	배경	양보	합계
1	-지만	0(0.00)	30(36.59)	23(28.05)	18(21.95)	9(10.98)	2(2.44)	82(100)
2	-지만	0(0.00)	29(34.94)	11(13.25)	34(40.96)	2(2.41)	7(8.43)	83(100)
3	-는데	5(6.02)	23(27.71)	10(12.05)	27(32.53)	15(18.07)	3(3.61)	83(100)
4	-아도	19(23.75)	10(12.50)	6(7.50)	2(2.50)	8(10.00)	35(43.75)	80(100)
5	-더라도	49(59.76)	3(3.66)	4(4.88)	2(2.44)	6(7.32)	18(21.95)	82(100)
6	-니들	34(41.98)	7(8.64)	6(7.41)	8(9.88)	11(13.58)	15(18.52)	81(100)
7	-는데	2(2.47)	19(23.46)	36(44.44)	14(17.28)	6(7.41)	4(4.94)	81(100)

16) 피험자의 성별은 남학생 21명, 여학생 62명이며, 국적은 중국 47명, 일본 11명, 대만 9명,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몽골, 베트남 2명씩,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호주는 1명씩이다.

8	-니들	29(35.80)	10(12.35)	6(7.41)	7(8.64)	9(11.11)	20(24.69)	81(100)
9	-르지라도	36(44.44)	10(12.35)	7(8.64)	6(7.41)	5(6.17)	17(20.99)	81(100)
10	-아도	38(46.34)	8(9.76)	3(3.66)	4(4.88)	3(3.66)	26(31.71)	82(100)
11	-더라도	22(26.51)	6(7.23)	9(10.84)	0(0.00)	13(15.66)	33(39.76)	83(100)
12	-르지라도	35(42.68)	5(6.10)	3(3.66)	14(17.07)	5(6.10)	20(24.39)	82(100)
	합계	269(27.42)	150(15.29)	119(12.13)	133(13.56)	99(10.09)	211(21.51)	981(100)

양보 연결어미로 알려진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니들’에 대해 그 의미를 ‘대립’으로 파악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문항4와 11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보 연결어미 관련 문항에서 ‘가정’을 선택한 비율이 낮게는 35%, 높게는 60%로 나타났다. 한편, 대립 연결어미로 쓰인 ‘-지만’과 ‘-는데’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립’, ‘대조’, ‘반대’로¹⁷⁾ 파악한 비율이 낮게는 72%, 높게는 89%를 웃돌았다. ‘가정’은 연결어미가 이끄는 선행절의 명제 의미에 기댄 용어임에 반해, ‘대립’, ‘대조’, ‘반대’는 선·후행절의 사건 관계에 주목한 용어이다. 그러나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로 가장 많이 선택한 의미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때,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니들’, 그리고 ‘-지만’, ‘-는데’의 의미 특성을 학습자 나름의 방식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이한 점은 ‘-지만’과 ‘-는데’의 의미를 ‘가정’이나 ‘양보’로 파악한 비율이 10% 이하인데 반해, ‘-르지라도’와 ‘-니들’에 대해서는 ‘가정’ 다음으로 ‘대립’, ‘대조’, ‘반대’를 의미로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대립’, ‘대조’, ‘반대’를 선택한 비율과 ‘양보’를 선택한 비율을 연결어미별로 살펴보면, 문항6 ‘-니들’에서 25.93%(21회)와 18.52%(15회), 문항8 ‘-니들’에서 28.40%(23회)와 24.69%(20회), 문항9 ‘-르지라도’에서 28.40%(23회)와 20.99%(17회), 문항12 ‘-르지라도’에서 26.83%(22회)와 24.39%(20회)이다. 이처럼 ‘-르지라도’와 ‘-니들’의 의미에 대해 ‘양보’에 앞서 ‘대립’, ‘대조’, ‘반대’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은 학습자가 이들 어미를 대립 연결어미와 관련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도’와 ‘-더라도’의 의미로 가장 많이 선택한 용어는 ‘가정’과 ‘양보’로 양분되었다. 문항10의 ‘-아도’와 문항5의 ‘-더라도’는 ‘가정’의 의미가 도드라진다고 본 것에 반해, 문항4의 ‘-아도’와 문항11의 ‘-더라도’의 의미로는 ‘양보’를 가

17) ‘대립’, ‘대조’, ‘반대’를 아우르는 용어로 ‘대립’을 선택한 이유는 각주 9)에서 언급하였다.

장 많이 선택하였다.

- (8) ㄱ. 내일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문항5)
 ㄱ'.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행을 갈 것이다.
 ㄴ.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사전을 찾지 마십시오. (문항10)
 ㄴ'.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전을 찾지 마라.

(8ㄱ)에서는 선행절에 쓰인 ‘내일’이 미래 사건에 대한 단서가 되며, (8ㄴ)은 수업 전에 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 또한 선행절의 사건이 미지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는 ‘양보’라는 개념보다 비교적 확실하게 미지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이는 ‘가정’을 ‘-아도’와 ‘-더라도’의 의미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9) ㄱ. 김치는 매일 먹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문항4)
 ㄱ'. 김치를 매일 먹고 있다. 하지만 싫증이 나지 않는다.
 ㄴ. 지금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문항11)
 ㄴ'. 지금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9ㄱ, ㄴ)의 선행절에 쓰인 ‘매일’, ‘지금’을 단서로 삼아 실제로 선행절의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이 경우, ‘-아도’와 ‘-더라도’의 의미가 ‘-지만’이나 ‘-는데’ 예문에서 나타난 ‘대립’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사건이 선행하므로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양보’로 파악한 것은 아닌가 한다.

양보 연결어미 중, 가정성이 강한 ‘-그러라도’나 ‘-ㄴ들’의 의미로 ‘가정’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아도’와 ‘-더라도’에 대해서는 선행절 사건의 사실성 유무에 따라 ‘가정’과 ‘양보’로 구분한 것은 학습자에게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의 사건 발생의 사실성 유무가 연결어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ㄱ. 대립 연결어미와 양보 연결어미를 학습자 나름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 ㄴ. ‘가정’을 양보 연결어미의 주된 의미로 파악한다.
 ㄷ. 선행절 사건의 사실성이 강한 경우, ‘-아도’와 ‘-더라도’의 의미를 ‘양보’로 인식하기도 한다.
 ㄹ. 가정성이 강한 ‘-그러라도’와 ‘-ㄴ들’의 의미로 ‘대립’, ‘대조’, ‘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는 양보 연결어미에 대해 ‘가정’을 주된 의미로 파악하였다. 선행절 사건의 사실성이 강한 경우 ‘양보’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양보’에 비해, ‘대립’, ‘대조’, ‘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보 연결어미로 제시되는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의 의미가 학습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인지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양보 연결어미의 제시 방안

학습자가 양보 연결어미로 제시되는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의 의미를 ‘양보’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대립’, ‘대조’, ‘반대’를 선호하는 것은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양보’라는 용어가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과 같은 소위 양보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데에 필요한가라는 점이다. 앞선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를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양보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데에 학습자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양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학습자가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로 선호하는 ‘가정’ 및 ‘대립’, ‘대조’, ‘반대’를 사용하여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 등의 연결어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결어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을 ‘-지만’이나 ‘-는데’와 다른 의미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에 대해 학습자가 ‘가정’이나 ‘대립’, ‘대조’, ‘반대’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지만’이나 ‘-는데’와 구분하여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나누는 것이 학습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 연결어미를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되 개별 연결어미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 맥락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결어미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양보’를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활용하여 양보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항목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를 한국어 교재에 실린 예문을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¹⁸⁾

- (11) ㄱ. 아무리 찾아도 내 안경이 안 보이는데요. (서울대, 3, 82)
 ㄱ'. 안경을 열심히 찾았다. 하지만 안경이 보이지 않는다.
 ㄴ. 내일 비가 와도 야외 학습은 꼭 갑니다. (성균관대, 3, 165)
 ㄴ'.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라고 한다. 내일 비가 오지만 야외 학습은 꼭 간다.
 ㄴ".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야외 학습은 꼭 간다.
 ㄷ. 언어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경희대, 3, 165)
 ㄷ'. 나와 당신의 언어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ㄷ".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ㄹ.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경희대, 4, 83)
 ㄹ'.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ㄹ".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ㅁ. 청바지를 입고서 하는데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 전통의 맛이 나겠어요? (연세대, 5, 157)
 ㅁ'. 연주를 잘하지만 (청바지 때문에) 전통의 맛이 나지 않는다.
 ㅁ". 연주를 잘할 수도 있지만 (청바지 때문에) 전통의 맛이 나지 않는다.

(11)의 예문이 나타내는 상황을 보면, (11ㄱ)은 (11ㄱ')처럼 이미 안경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음을 뜻하므로 ‘아도’에는 ‘가정’의 의미는 보이지 않고 ‘대립’의 의미만 나타난다. 다만 ‘아도’, ‘더라도’, ‘그러라도’, ‘-ㄴ들’ 등과 주로 공기하여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부사 ‘아무리’가 쓰였으므로 ‘-지만’보다는 ‘아도’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1ㄴ)의 상황은 내일 비가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11ㄴ')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11ㄴ")에도 야외 학습을 감을 뜻한다. 즉, ‘아도’가 기본적으로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되, (11ㄴ")에서는 ‘가정’의 의미도 표출하고 있다.

(11ㄷ)에서는 (11ㄷ')처럼 현재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거나 (11ㄷ")처럼 일반적으로 대화자의 언어가 다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때 ‘더라도’는 (11ㄴ)의 ‘아도’와 마찬가지로 ‘대립’의 의미를 근간으로 하되, (11ㄷ")처럼 해석할 경우 ‘가정’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11ㄹ)에서 ‘-그러라도’가 사용된 상황을 보면, (11ㄹ')처럼 ‘-지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11ㄹ")에서는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즉, (11ㄹ)의 ‘-그러라도’는 ‘대립’과 함께 ‘가정’의 의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11ㅁ)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전통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을 보고(11ㅁ'), 또는 연주하는 것을 보기 전에(11ㅁ") 판단하는 것으로 연주를 하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청바지 때문에 전통의 맛이 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때 ‘-ㄴ들’은 연주한 후이면 (11ㅁ')처럼 ‘대립’의 의미만, 연주하기 전에 연주를 잘할 것을 가정한다면 (11ㅁ")처럼 ‘대립’과 ‘가정’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보 연결어미가 쓰인 상황은 ‘가정’과 ‘대립’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도’는 맥락에 따라 ‘대립’의 의미만 나타낼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과 ‘대립’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양보 연결어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그러라도’를¹⁹⁾ ‘아도’, ‘더라도’, ‘-ㄴ들’

18) 한국어 학습자가 ‘양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예문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보’ 이외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여 ‘양보’를 학습에 필요한 문법 용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양보 연결어미의 제시 방안에 앞서 교재에 실린 예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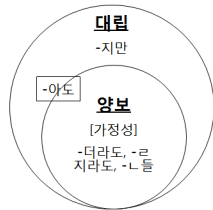
19) 윤평현(2005:161-164)에서 ‘아도’는 선행절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더라도’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실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라도’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데서 생기는 놀라움으로 강한 가정을 나타내므로 세 연결어미의 가정성의 정도는 ‘아도<-더라도<-그러라도’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ㄴ들’은 주로 반어적 의문문과 쓰이는 데 이때는 가정성보다는 후행절 명제 의미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라도’와 ‘-ㄴ들’을 비교해 볼 때, ‘-그러라도’가 후행절에 의지, 계획 등을 나타내는 말이 주로 옴으로 ‘-ㄴ들’보다 가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및 ‘-지만’으로 대체해 보았다.

- (12) ㄱ. 부모님이 반대하실지라도 저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연세대, 6, 34)
 ㄴ.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시더라도) 저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ㄴ'. 부모님이 반대하신들 이 사람과 결혼을 못 하겠어요?
 ㄴ". 부모님이 반대하시지만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ㄷ.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시더라도/실지라도) 저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
 고 말 거예요.
 ㄷ'.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신들 이 사람과 결혼을 못 하겠어요?
 ㄷ".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시지만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르지라도’는 다른 양보 연결어미는 물론 대립 연결어미인 ‘-지만’과 비교적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²⁰⁾ 그러나 ‘가정하여 말하여’라는 뜻의 부사 ‘설령’을 문두에 넣어보면, 각 문장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가정성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12ㄷ")의 ‘-지만’은 가정을 나타내는 부사 ‘설령’과 함께 쓰이지 못하는 공기 제약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가정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보 연결어미는 대립 연결어미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으면서도 가정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연결어미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13)과 같다.

(13)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의 관계



다음으로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 특성인 가정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 20) 윤평현(2005:92-99)에서도 선행절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후행절 내용에 관여한다는 점, 후행절에 선행절과 반대 또는 대조되는 내용이 올 것을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대립 관계와 양보 관계가 의미적으로 유사함을 인정하였다.

- (14) ㄱ.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은 꼭 하고 잡니다. (이화여대, 3, 160)
 ㄴ. 피곤하지 않으면 운동은 꼭 하고 잔다. [일반적 기대1]
 ㄴ'. 피곤할 때는 운동을 안 할 수 있다. [(가정 상황에서의) 일반적 기대2]
 ㄴ". 피곤할 때도 나는 운동은 꼭 하고 잔다. [(가정 상황에서) 일반적 기대1 충족] [(가정 상황에서의) 일반적 기대2 부정]
 ㄷ. 피곤하지만 운동은 꼭 하고 잔다.

(14ㄱ)의 후행절은 ‘-아도’에 이끌리는 선행절에 의해 강조의 효과를 지닌다.²¹⁾ 양보문은 (14ㄴ)을 전제하되, 선행절에 반하는 가정 상황에서도 (14ㄴ")처럼 후행절의 ‘운동을 한다.’는 주장을 굳히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즉, (14ㄴ")은 가정 상황에서도 (14ㄴ)의 일반적 기대1이 충족되거나 (14ㄴ')의 가정 상황에서의 일반적 기대2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14ㄴ)을 전제하므로 선행절을 ‘피곤하다’로 가정할 때 기대되는 상황 (14ㄴ')과 이에 반하는 상황이 동시에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²²⁾ 하지만 (14ㄷ)처럼 ‘-지만’이 쓰인 문장에서는 가정성을 엿볼 수 없다.

따라서 양보 연결어미는 가정 상황(선행절)과 이때 기대되는 상황에 반하는 상황(후행절)을 연결하는 어미로 [가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대의 부정]을²³⁾ 그 의

- 21) 이환목(1981:53-61)에 의하면 양보절은 화자의 주장이 진일 수 있는 가능한 세계가 청자가 전제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에서 강조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다. 서정섭(1991:12)에서도 양보문에서 화자는 선행절보다 후행절의 내용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자의 초점은 선행절보다 후행절에 있다고 보았으며, 윤평현(2005:148-151)에서는 양보 연결어미가 공통적으로 가정, 강조, 기대에 어긋남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선행절은 후행절 화행의 강조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김윤정(2002:40)과 우상민(2008:4)에서도 양보문이 주절이 나타내는 화자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강조 형식이라 하였다.
- 22) 이기동(1977:134)에서도 양보절을 가정이라 보면서 후행절을 가정에 대한 기대에 어긋남이라 하였다. 이는 Lakoff(1971:133)의 ‘기대부정(denial of expectation)’, Jespersen(1940:360)의 ‘모순(contradiction)’ 또는 ‘의외성(unexpectedness)’, Quirk et al.(1980:1098)의 ‘기대에 상반되는(contrary to expectation)’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현지 2006:9, 윤평현 2005:144-146 참조).
- 23) 신지연(2004:83)에서는 양보와 대립 연결어미의 ‘사실성 여부’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기대 부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i)과 같이 선행절에 가정성이 도드라지는 문장에서 연결어미 ‘-아도’가 ‘-지만’으로 대체될 수는 없으므로 양보 연결어미에는 가정성이라는 의미 특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미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양보 연결어미가 의미적으로 ‘-지만’과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²⁴⁾

(15) ㄱ.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은 꼭 하고 잡니다. (이화여대, 3, 160)

ㄴ. S1: 피곤하다, S2: 운동은 꼭 한다

S1*-면-S2 [일반적 기대1] 피곤하지 않으면 운동은 꼭 한다

S1-면-S2* [가정에 대한 기대2] 피곤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다

S1-지만-S2 [기대2 부정=기대1] 피곤하지만 운동은 꼭 한다.

이 도식은 ‘-더라도’, ‘-ㄴ지라도’, ‘-ㄴ들’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6) ㄱ.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연세대, 5, 143)

ㄴ. S1: 손실을 본다, S2: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S1*-면-S2 [일반적 기대1] 손실을 보지 않으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S1-면-S2* [가정에 대한 기대2] 손실을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한다

S1-지만-S2 [기대2 부정=기대1] 손실을 보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17) ㄱ.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연세대, 6, 34)

ㄴ. S1: 어려움이 있다, S2: 포기하지 않는다

S1*-면-S2 [일반적 기대1] 어려움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S1-면-S2* [가정에 대한 기대2]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한다

S1-지만-S2 [기대2 부정=기대1]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18) ㄱ. 내가 아무리 장사인들 그를 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희대, 4, 170)

ㄴ. S1: 장사이다, S2: 그를 당하지 못한다

(i) ㄱ. 하늘이 두 쪽이 나{도/*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ㄴ. 주{어도/*지만} 못 보네.

24) 홍윤기(2009:260-263)에서도 복합문에서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상황과 의미를 학습자가 초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문법용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하여 각 연결어미의 의미 제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S1*-면-S2	[일반적 기대1]	장사가 아니면 그를 당하지 못한다
S1-면-S2*	[가정에 대한 기대2]	장사이면 그를 당한다
S1-지만-S2	[기대2 부정=기대1]	장사이지만 그를 당하지 못한다

5. 맺음말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는 ‘이유’, ‘의도’, ‘가정’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로 제시되기도 하고 문법 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 용어로도 쓰인다. 그러나 다른 문법 용어와는 달리, ‘지하철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처럼 단어로 제시될 때와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에 가야 합니다.’에서처럼 연결어미 ‘-아도’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 용어로 쓰일 때 ‘양보’의 의미를 한국어 학습자가 동일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는 문법 용어가 갖추어야 할 의미의 함축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의 용이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가 문법 용어로, 그리고 학습자가 이해해야 할 연결어미의 의미로 제시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양보’와 의미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알려져 온 ‘대립’의 도움을 받아 ‘양보’의 의미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양보 연결어미로 제시되어 온 ‘-아도’, ‘-더라도’, ‘-ㄴ지라도’, ‘-ㄴ들’과 대립 연결어미로 제시되어 온 ‘-지만’과 ‘-는데’를 대상으로 이들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양보 연결어미와 대립 연결어미를 학습자 나름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을 양보 연결어미의 주된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재에 쓰인 예문을 토대로 양보 연결어미를 대립 연결어미로 대체해 본 결과, 양보 연결어미에서는 대립 연결어미와 달리 가정성이 도드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립 연결어미와 양보 연결어미를 함께 다루되, 선행절에 가정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경우 양보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소위 양보 연결어미 ‘-아도’, ‘-더라도’, ‘-ㄴ지라도’, ‘-ㄴ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19) ‘-아도’, ‘-더라도’, ‘-ㄴ지라도’, ‘-ㄴ들’의 제시 방안²⁵⁾

ㄱ. 범주: 가정 상황(선행절)과 이때 기대되는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후행절)을 연결하는 대립 연결어미

ㄴ. 의미: [가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대의 부정]

ㄷ. S1-아도/더라도/르지라도/ㄴ들-S2

S1*-면-S2 [일반적 기대1]

S1-면-S2* [가정에 대한 기대2]

S1-지만-S2 [기대2 부정=기대1]

본고에서는 문법 용어로 쓰이고 있는 ‘양보’가 한국어 교육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양보 연결어미가 대립 연결어미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고의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문법 용어 선정과 연결어미 유형 분류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육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문법 용어 및 연결어미의 유형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장범모·김홍규. 2009. 《한국어 사용 빈도》, 서울: 한국문화사.
- 김윤정. 2002. 《국어 양보 접속어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2006. 《한국어 접속문에서의 양보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성원. 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 pp.107~125.
- 서정섭. 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 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한국어문학회) 84. pp.75~98.
- 우상민. 2008. 《국어 양보 표현의 사전(辭典) 기술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평현. 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이환목. 1981. 〈양보문의 의미분석〉, 《어학교육》(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2. pp.53~61.

임지룡. 1982. 〈상대성 접속어미 연구〉, 《동양문화연구》(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9. pp.189~227.

홍윤기. 2006. 〈메타언어(Meta-language)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32. pp.381~408.

홍윤기. 2009. 〈상징 의미에 따른 연결어미의 결합 제약 연구〉,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40. pp.237~266.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0~2003. 《한국어》 초급 I·II, 중급 I·II, 고급 I·II,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 《한국어》 1~4, 서울: 문진미디어.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2009. 《연세 한국어》 1~6,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2006.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사전>

국립국어연구원(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백봉자.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하우.

이희자·이중희. 2006.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25) ‘가정’, ‘기대’, ‘기대 부정’, ‘반대’와 같은 용어는 홍윤기(2006, 2009)에서 언급한 쉽고 간단한 한국어교육용 메타언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ritical Consideration on Concessive Ending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 Huijeong · Hong, Yunki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concessive endings and suggest the educational methods of them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eaning of concession that is presented as a word does not coincide with the meaning of concession that is presented as a grammatical term. Also, concessive endings such as ‘-아도’, ‘-더라도’, ‘-르지라도’, ‘-ㄴ들’ are frequently able to be replaced by contrastive endings like ‘-지만’, ‘-는데’. That is why this paper raises doubts about the meaning of concession.

A survey of 83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check out how Korean language learners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cession. It was revealed that Korean language learners marked the meaning of concessive endings down as contrast, assumption as well as concession. Also, that survey implies that concession can not be used as a grammatical term, and t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cessive endings can not be presented with concession, but contrast or assumption as their meaning.

This paper could clarify the semantic category and the meaning of concessive endings based on the surve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the analysis of 12 sample sentences in 5 kind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irstly, Concessive endings are a kind of contrastive endings and assumption features in concessive endings. Secondly, the meaning of concessive endings is [denial of expectation that is predicted in assumed situation].

◇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junctive ending, concession, contrast, assumption, denial of expectation

서희정(제1저자)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전자우편 : hjseo@khu.ac.kr
접수일자 : 2010. 11. 20.
심사일자 : 2010. 12. 10.
게재 확정 일자 : 2010. 12. 22

홍윤기(교신저자)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전자우편 : yunkihong@khu.ac.kr
접수일자 : 2010. 11. 20.
심사일자 : 2010. 12. 10.
게재 확정 일자 : 2010. 12. 22